주님은 어떤 교회에 양을 맡길까요?

(요 21:1~25)

서 론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로 고민이 무엇입니까? 요즘 가장 큰 고민을 물으면,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상황에 따라 대답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모든 교회들이 애쓰고 있지만, 부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2012년도 교세 현황을 보면, 감리교단의 교인 수는 1,580,381명이었지만, 2022년도 교세 현황을 보면, 감리교단의 교인 수는 1,203,824명으로 10년 동안 무려 376,557명 감소로 전체의 24%가 감소한 것(실제는 더 줄었으며, 코로나를 거치면서 약 20% 감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2년도 교세 현황 선교국 자료로 2015년 11월 23일 14:20분에 작성된 자료이며, 2022년도 자료도 「기독교 대한 감리회」 (2022년 06월 03), 2022년 3월 7일, 해당 사이트: <https://kmc.or.kr/hq-system/dept-of-mission/%ec%84%a0%ea%b5%90%ea%b5%ad-%ec%9e%90%eb%a3%8c%ec%8b%a4?mod=document&pageid=1&keyword=2012&uid=107303>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2012년 기독교 대한 감리회 은급 비를 받으시는 원로 목사님이 약 500명을 조금 넘게 받으시는 분들이 2012년도에 와서는 1000여명이 넘게 되었고, 2023년 5월 현재는 1700명 정도가 받고 계시고, 40년 목회하시는 분들은 80만원 받으시지만, 월 평균 67만원 수령하고 계시며, 1952년 4월-1963년 3월에 해당하는 예상 은퇴 목회자는 4,302명이었고, 1964년 4월-1968년 3월까지 은퇴 예상 목회자는 5,917명이 됩니다. 현재 은급비를 받는 목회자 1700명과 앞으로 15년 후 5,917명이 은퇴를 하게 되고, 약 15년 후 7,000명 정도가 은급비를 받는 원로 목사님이 되겠지요? 모아둔 은급 비는 현재 740억 정도이고, 년 2% 내는 은급 비는 157억이고, 2022년 은급비로 지출된 돈은 151억이 됩니다. 2022년도에는 원로 목사님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소천 하였기에 은급비로 낸 돈보다 지출된 돈이 적었지만, 예전에는 걷은 돈에 비해 지출이 많아 은급비로 모아둔 돈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웠던 것입니다. 현재 감리교 교회는 약 6,300개 정도이고, 목회자는 약 11,000명이었고, 15년 뒤에 은퇴하는 목회자가 약 7,000명이 은급 대상이 되면, 은급 비는 삼시간에 고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현재 대학 입시생이 줄고 있으며, 군인들 중 사회에서 신앙 생활하다 들어 온 사람들은 10% 정도가 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신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을 보면, 모집이 정원에 많이 미달되는 현상입니다. 들어가도 목회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15년 뒤에는 은퇴하는 목회자가 55%가 넘을 것을 감안 한다면, 목회자 부족 현상이 현실이 됩니다. 지금도 각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각 교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교회 부흥을 원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이유일까요? 그러나 주님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와 정반대의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어떤 교회에 내 양을 맡길까?”라는 질문 속에 교회 부흥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바라는 대로 양을 맡길까요? 우리는 주님의 입장에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하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주님의 질문에 해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저는 오늘은 “주님은 어떤 교회에 양을 맡길까요?”란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낸 증거는...?(요 21:1~14)

요 21:1~14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알 수 없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증거를 살펴보면, (1) 막달라 마리아(요 20:11-18); 막 16:9, (2) 여자들(마 28:1-10), (3)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그의 동행자(눅 24:13-35), (4) 시몬 베드로(눅 24:34; 고전 15:5), (6) 도마를 포함한 열한 제자(요 20:19-23), (7) 디베라 바다에 서 있던 일고 제자(요 21:1-14), (8) 갈릴리의 어떤 산에 있던 제자들(마 28:16-17), (9) 오백여 형제(고전 15:6), (10) 주님의 형제 야고보(고전 15:7), (11)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 서 있던 제자들(행 1:4-12; 눅 24:50-53), (12) 사도 바울(행 9:3-6; 고전 15:8) 등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통해 자신이 무신론자에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던 것은 예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는 역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눅 24: 24:36-49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증언하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일의 증인, 고난의 증인,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 죄 사함의 증인 될 것을 부탁 하셨고, 증인을 잘 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요 14:16-26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행 1:8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언적 정리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너희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일의 증인, 고난의 증인,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 죄 사함의 증인 될 것을 부탁 하셨고, 증인을 잘 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교회에 양을 맡길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요 21:15~17)

요 21:15~17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에는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그러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두 번 질문을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는 ‘아가파오’(ἀγαπάω)로 물으시지만, 세 번째 질문에는 ‘필레오’(φιλέω)로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왜? 주님은 양을 맡기기 전에 사랑을 확인 하셨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알려면, 사랑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에로스(Eρως)**는 남녀 간의 불타는 육적인 사랑이라고 하고, **루두스(lūduS)**는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세요”라는 바람둥이 사랑이고, **스토르게(στοργή)**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고, **마니아(μανία)**는 집은 사지 않아도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비싼 오토바이 사서 튜닝해서 몰고 다니는 광적인 사랑을 말하고, **플래그마(πραγμα)**는 젊은이들이 결혼해도 네 통장 따로, 내 통장 따로 관리하고 공동 경비는 서로 똑같이 내는 흔히 하는 계산적인 사

량이고, 플라토닉 사랑(Platonic love)은 스킨십은 없이 그냥 좋아하는 정신적인 사랑이고, 필레아(φιλία)는 친구 간에 좋아하는 우정이고, 마지막으로 조건이 없는 신적인 사랑이 아가페인 것입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기 전 “아가파오”라는 사랑을 확인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맡기시는 양은 손이 많이 가는 양이기에 세상적인 사랑가지고는 감당이 되지 않기에 아가파오를 확인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양을 맡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확인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언적 정리

주님이 양을 맡길 때 세상적인 에로스, 루두스, 스토르게, 마니아, 플라그마, 플라토닉, 필레아가 아니라, 조건이 없는 신적인 아가페 사랑이 회복된 교회에 당신의 양을 맡긴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했던 아가페적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이 맡긴 양에 대해 주님이 부탁한 양육 방법은...?(요 21:15~17)

요 21:15~17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부탁한 양의 양육 방법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런 양육 방법을 실행하는 교회에 양을 맡기겠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 하신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고, 여기 어린양을 헬라어로는 “아르니아”(ἀρνίον)라고 합니다. 아르니아는 “아렌”(αρην)이라는 명사의 지소어입니다. 지소어란 말이 좀 어렵지요? 지소어란? 우리말에는 없는 문법으로 어떤 단어로부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보다 훨씬 작은 개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비올라(Viola)라는 악기가 있어요. 굉장히 큰데 비올라 중에 가장 작은 비올라에 “in”이란 접미사를 붙여 바이올린(Violin)이라 부릅니다. 즉, 바이올린이란 비올라의 “지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니아는 양 중에서도 갓 태어난 지극히 어린 양을 말하는 겁니다. “먹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보스케인데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어린 아이 같은 분들에게는 젖과 같은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초보적인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치라”(Ποίμαινε τὰ πρόβατά μου)입니다. 여기서 쓰인 양이라는 헬라어는 “프로바타”입니다. 장성한 양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치라”는 헬라어는 “양육하라, 교육하라”라는 뜻입니다. 장성한 양에게는 젖이 아니라, 건초를 주는 것처럼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들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과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교육하고, 훈육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Βόσκει τὰ πρόβατά μου)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인 양은 장성한 양을 뜻하는 “프로바타”(πρόβατα)입니다. 여기 쓰인 먹이라는 어린양에게 젖을 먹인다는 의미의 “보스케”(Βόσκει)입니다. 다 크고 장성한 사람이라도 마치 어린 젖먹이를 대하는 그런 조심스런 심정 사랑스런 심정으로 양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주님이 맡긴 어린 양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다 큰 양은 제대로 양육해야 하고, 다 큰 양일지라도 조심스럽게 다룰 줄 아는 교회에 양을 맡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언적 정리

주님이 맡긴 양의 훈육 방법은 목도 가누지 못하는 어린 양(ἀρνίον)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다 큰 양(πρόβατα)은 제대로 양육해야 하고, 다 큰 양(πρόβατα)일지라도 조심스럽게 다룰 줄 아는 교회에 양을 맡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로, 주님이 맡긴 양을 돌보기 위해 사랑이 회복 되려면...?(행 2:38)

행 2:38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 주님이 부탁한 보혜사 성령을 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공적으로 예수가 구세주임을 선언하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증언합니다.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은 확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증언합니다. 행 10:24~48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눅 24:44~49)을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 죄 사함을 확증으로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부흥의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전적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맡기시는 양을 돌볼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야 하고, 주님은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 교회에 양을 맡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가파오 사랑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에 갈 5:16-24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으로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셨고, 그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아가페라고 증언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고,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은 것을 통해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능함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가능하게 됩니다.

정언적 정리

주님이 양을 맡길 때 아가페 사랑을 요구 하셨다면, 그 사랑이 회복하기 위해 성령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성령 받은 교회에게 주님은 양을 맡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 2:38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행 10:24~48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눅 24:44~49)을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설교 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결론

주님은 어떤 교회에 양을 맡길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증명하셨고, 둘째로, 주님이 교회에 양을 맡길 때는 반드시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는 이유는 주님이 맡기는 양은 세상적인 사랑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기에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 교회에 맡기게 되고, 셋째로, 주님이 맡긴 가장 어린 양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다 큰 양은 제대로 제자 삼아야 하고, 다 큰 양일지라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양은 고개도 가누지 못한 어린 양을 돌보듯 조심스럽게 다루는 교회에 양을 맡기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로, 주님이 양을 맡길 때 아가페 사랑을 요구 하셨고, 그 사랑이 회복 되려면, 성령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성령 받은 교회에게 주님은 양을 맡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 2:38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행 10:24~48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눅 24:44~49)을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주님의 약속이 성취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부흥의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전적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맡기시는 양을 돌볼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야 하고, 주님의 부탁대로 제대로 양육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교회 부흥의 초석과 원동력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